

# It's printing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  
DTPIA의 기술로 이룰 수 있습니다.

## 성진에드컴

# 기획에서 후가공까지 일괄처리시스템 구축

성진에드컴(대표 김정호, www.dtpia.co.kr)은 2009년을 맞아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하면서 인쇄업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가고 있다. 최근 호리존의 접지기, 중철기, 무선기와 서멀 코팅기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장비를 대거 도입해 POD업무라인을 대폭 강화한 성진에드컴은 CIP4 실현을 위한 CMS관리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끝마쳤다.

### 미래 지향적 인쇄시스템 구성

2009년 들어 성진에드컴은 오프셋기반의 인쇄영역과 디지털 영역과의 조화를 미래 방향성으로 설정, HP 인디고 프레스 7000과 코니카 미놀타 LD-6500 2대 등의 디지털 인쇄기와 다 이니폰스크린 CTP 8800ZX 2대, 호리존 2절 접지기 AFC-566FKT 2대, 호리존 중철제책라인 StitchLiner, 무선제책기 BQ-470, 국전 서멀 코팅기를 도입하는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고객들의 요구에 완벽하게 부응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인쇄기부터 후가공 라인까지 자체적인 일괄라인을 모두 갖추게 되었으며 디지털인쇄물의 후가공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인쇄사와는 달리 늘어나고 있는 소량다품종 인쇄물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 리뉴얼로 e-비즈니스 인쇄에 앞장

성진에드컴은 일찌감치 인쇄의 e-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회사 창립과 함께 www.dtpia.com 사이트를 오픈했으며 e-비즈니스의 내실화를 위해 실질적인 업무에서 고객 편의 제공을 최

우선으로 추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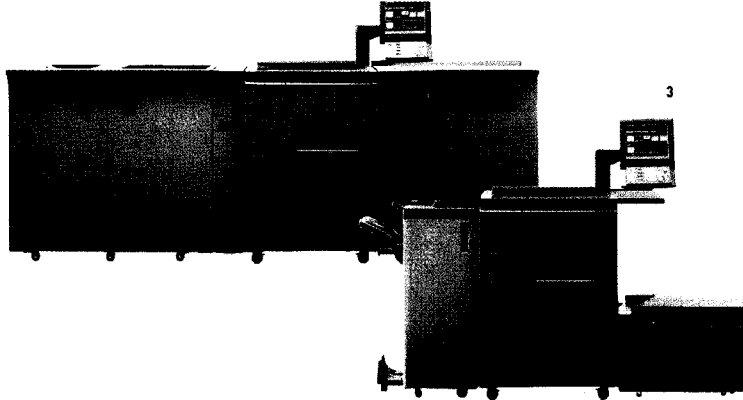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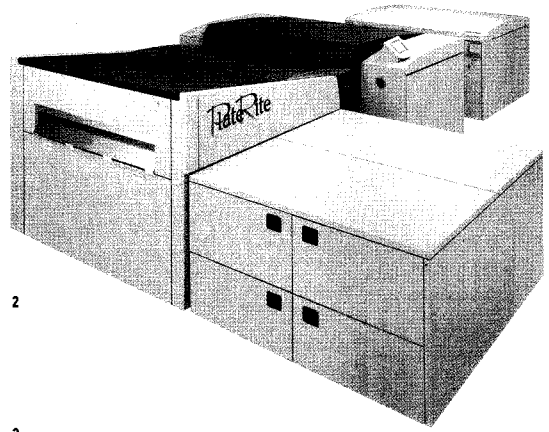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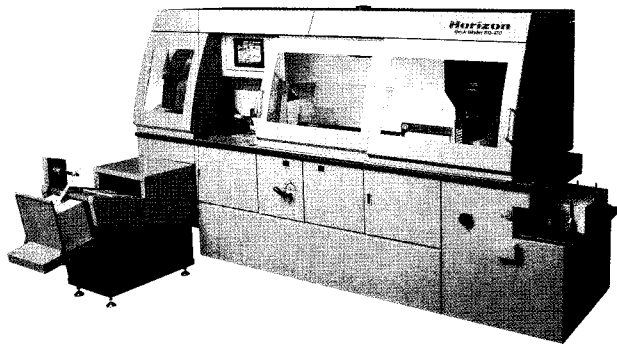
그리고 2009년부터 e-비즈니스의 새로운 차원을 선보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피오디센터(www.podcenter.co.kr) 도메인을 통한 홈페이지 구축 및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e-비즈니스를 통해 기본적인 소량인쇄, 낱장인쇄, 제책, 표지인쇄 등의 일반적인 업무 외에도 1:1인쇄수요에 대응하는 카탈로그, DM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변인쇄, 주문형 인쇄 서비스를 후가공 설비와 연결, 단납기를 실현하고 디지털인쇄기의 CMS 강화를 통한 고품질인쇄의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

성진에드컴은 가진 강점을 살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내의 역량 결집으로 인쇄품질향상과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디지털 인쇄기와 후가공 라인에 대한 투자를 벌였으며 e-비즈니스 서비스 강화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 도전 정신으로 실패와 불황 극복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실패 없는 사업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성진에드컴도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전자동화 인쇄시스템 개발 등 여러 번의 큰 시도 과정에서 실패가 있었고 그에 따른 부담도 있었지만 이런 과감한 시도가 오늘날의 성진에드컴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축적된 경험과 안목은 크로스미디어로의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게 했으며 오프셋기반의



1 호리존 BQ470전자동 4클램프 무선철 제책기  
 2 스크린의 CTP Plate Rite 8800ZX  
 3 스크린이 공급하고 있는 코니카미놀타 LD6500  
 디지털 컬러 프린터

인쇄산업도 앞으로는 디지털영역과의 조화가 생존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에 따른 대비책으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디지털인쇄기를 도입할 뿐 아니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인쇄기와 후가공 라인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고품질 디지털 인쇄 서비스에 나섰다. 이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인쇄물의 형태와 요구를 디지털 인쇄에 접목해 그에 걸맞는 디지털 인쇄기와 후가공 라인을 갖추게 되었다. 이런 대규모 투자는 불황이 깊을수록 움츠러드는 것만으로 견디는 것은 힘들뿐 아니라 그 한계가 명확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불황을 벗어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창립 이래로 항상 적극적인 도전을 해온 성진에드컴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진에드컴은 올해 설립되는 일본의 DTPIA-JAPAN을 통해 해외시장개척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국내에서는 지방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방안을 마련, 실행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로운 도전이지만 지금까지 끊임없이 추구해온 도전 정신의 연속선상에 있다.

### 성장 예상되는 디지털인쇄에 철저한 준비

앞으로 소량 인쇄물 가운데 상당한 분량은 디지털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변화는 단순한 인쇄만이 아닌 후가공의 전 공정이 디지털인쇄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인쇄회사가 보다 효과적인 변화에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인쇄업계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또한, 현재 경인쇄시장도 점차 디지털시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성진에드컴은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실제로 풍부한 후가공 노하우를 최신설비와 결합, 생산합리성의 극대화 및 전 공정의 효율적인 대량생산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저 편의 위주의 사이트를 구축, 오프셋과 디지털의 각 인쇄특성에 맞는 제품을 고객이 편하게 주문제작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면서 웹2.0 시대에 걸맞는 웹사이트로의 변모를 추진하는 것도 디지털인쇄 시대를 대비하는 성진에드컴의 전략에서 비롯한 것이다. 앞장서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선도 기업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창립 이래로 지속되어 온 도전정신에 따른 자연스런 귀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성진에드컴이 새로 도입한 주요 장비들

#### 호리존의 전자동 4클램프 무선 제책기 BQ-470

모든 곳에 자동 조정되는 자동화제책기로 시간당 최대 1350권을 생산할 수 있다. 간편한 인터페이스로 제책 경험이 없는 오퍼레이터라도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옵션인 SI-470이라는 책 두께 측정 장치를 장착, 책 두께를 캘리퍼로 측정하면 제책기의 클램퍼가 바로 그 두께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된다.

#### PlateRite 8800 ZX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의 최신형 CTP. 최신 1024채널의 GLV 레이저 광원을 탑재하여 4×6전지를 기준으로 시간당 50판의 출력 속도를 자랑한다. 자동 간지 제거 및 자동판 공급 그리고 현상까지의 전 공정이 완전 자동으로 이뤄진다. 자동 판 공급을 지원하는 멀티오토로더 장착으로 최대 500장까지 판 공급을 완전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